

# 임산물 불법채취에 칼 빼들어

### 전북도, 마을주민·등산객 등 대상 계도 활동 실시

전북도가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자연산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등산시즌을 맞아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이라는 방침 아래 마을주민·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산림 내 불법채취 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하는 등의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집단으로 산주 몰래 산나물·산약초를 마구잡이로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잘라가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15개반 45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

기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와 병행하여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도 산림당국은 "산행 중에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신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임실치즈의 상징이자, 임실군민의 자부심으로 영원히

### 고지정환 신부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임실N치즈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1천억원 생전 임실N치즈축제 해마다 찾아 기뻐하기도

임실치즈의 개척자이자 한국치즈의 대부인 고지정환 신부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국민훈장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총 5등급으로 구분됐으며, 모란장은 2등급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 문 대통령을 대신해 고지정환 신부의 빈소가 차려진 전주 중앙성당을 찾아 유족인 아니때(여조카)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수한다.

문재인 정부는 생전에 지 신부가 척박했던 임실군을 한국치즈의 대명사로 성장시켰으며, 임실치즈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치즈산업의 메카로 만든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지난 2016년 심 민 군수로부터 명예군민증을 받은 지 신부는 임실치즈의 상징이자, 임실군민의 자부심으로 영원히 남게 됐다.

선종한 지 신부의 빈소에는 심 민 임실군수와 신대용 군의회의장을 비롯하여, 많은 임실군민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청와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지권 등 정관계 많은 인사들이 찾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다.

발기에 출신으로 지난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그는 가난에 힘겨워했던 임실주민들을 위해

산양 두 마리의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3년여의 시행착오 속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1966년 임실산양협동조합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설립하고 치즈공장과 치즈숙성실을 만들었다. 이듬해인 1967년 마침내 치즈개발에 성공, 오늘 날의 임실N치즈산업의 시초가 되었다.

이 공간은 훗날 임실치즈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난 2017년 임실군은 10억4000만원을 들여 지 신부가 세운 치즈공장과 살던 집을 복원해 임실치즈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곳은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임실치즈의 50주년 역사를 한 눈에 보고 배우는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 군수는 당시 새롭게 재창조된 이곳을 찾은 지 신부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심 군수는 "당시 휠체어를 탄 불완전한 몸을 이끌고, 자신이 지내던 2층 공간까지 올라오셔서, 이곳에 제 친실이 있었고, 여기에서 임실치즈를 위해 기도했지요. 아, 이곳에 숙성실을 있었고, 주민들과 치즈를 개발했는데..."라며 회고하던 지 신부를 기억했다.

지 신부가 영면하기 하루 전인 12일은 우연찮게도 임실치즈농협 50주년 제2공장의 준공식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임실치즈는 연간 27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임실N치즈, 임실N치즈피자, 지정환피자 등의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30~4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급성장했다.

지 신부는 지난 2015년 임실N치즈축제를 처음 개최할 때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축제장을 찾아 수십만명의 방문객을 보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심 군수는 "축제장을 찾을 때마다 많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감격해 하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별세하시기 보름 전에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손목에 보브를 해주셨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지 신부의 장례미사는 16일 오전 10시에 전주 중앙성당에서 진행되며, 장지는 성직자 묘지인 치명자산 성지다. 심 민 군수와 임실군청 직원들, 신대용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주민들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

한편 지 신부는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 임실치즈의 아버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애인에 대한 헌신적 노력으로 2016년 2월 4일 법무부로부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에 오신지 57년만이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연합뉴스에 연 300억 혈세 지원 폐지"... 청원 20만명 돌파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연 300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중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11일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참여한 국민 수는 15일 오전 10시54분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 'naver - \*\*\*'는 "국가기간뉴스 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

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 원이라는 재정 지원을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계의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해마다 지급되는 파격적인 금액의 국가보조금 제도 전면폐지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게시된 이 청원글의 마감 시한은 5월 4일까지다. /뉴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 3일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사용했던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 사진을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또 이 매체는 지난 10일 한미정상 회담 참석을 위해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기도 했다. /뉴스

# 건협 전북도회, '제1권역 대표회원 간담회' 실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초청한 가운데, '제1권역(전주, 완주) 대표회원 간담회'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는 발주기관 및 지역회원사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내 종합건설업체 동향 설명과 기업 애로사항 및 지역건설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주고 받았다. 특히, 지역 종합건설업체 경영

환경 제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철저한 설계도서 검토, 관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서고 있다"며, "부실공사 차단과 건설사의 경영난 완화에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건설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정대영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회원사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전국 2위 쾌거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2018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에 이어 전국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사업 운영능력과 참여자 만족도, 지도자 업무성과 등 종합적으로 이뤄졌고, 전북은 전국 평균(63.4

점)보다 4.9점 높은 68.3점을 받았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도시형(90개)과 도농복합형(55개), 농어촌형(84개) 등 지차단체를 그룹으로 분류해 이뤄졌는데 김제시가 80.6점을 받아 도농복합형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장수군은 농어촌형 그룹에서 5위를 기록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출범 및 에너지전환과 전북에너지재단 설립 제안을 위한 토론회에 이원택 정부부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원, 유해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분묘이장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소재지: 전주시완산구용북동산38·6번지
2. 개정시유: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3개월
4. 무연 분묘는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임의개정  
유연 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후 개정
5. 묘지기수: 8기  
※추후에 발견된 묘지는 공고에 갈음합니다
6. 안치장소: 전주 하늘정원 추모관(063-221-7185)
7. 안치기간: 10년
8. 신고처: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306 햇빛찬아파트 101동 403호  
황해자(010-3659-0975), 김용모(010-3654-4448)
9. 신고방법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 등)를 구비해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